Did You Google Me?



12th

NAME 헤이든 태승 빅커스-권 Hayden Taeseung Vickers-Kwon

AGE 17

HAIR BLK

EYES BRW

H&W 179cm 83kg

CW: 청소년 음주 운전, 자동차 사고



Liam Oh

새 학생증에 붙게 될 사진이 꼭 어제 찍은 것만 같다. "맞아요. 이틀쯤 됐죠." 벌써 올해만 해서 세 번째 분실과 재발급이다. 매년 규칙적으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헤이든은 행정실의 약속된 손님이다. 입학한 지 세 번째 해가 되자 선생들은 그 애가 졸업 때까지 앞으로 몇 개의 학생증을 더 잃어버릴지를 두고 오십 달러를 걸어 내기했다.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지?" "그럼요." 이미 판돈의 두 배 하고도 ⅔를 수수료로 치른 그는 당연하게도 조심성과 거리가 멀다. 서류 제출을 마친 단골이 AP 미시경제학 수업을 앞두고 일부러 미적거리기 위해 사물함에 처박아 놓은 지갑을 찾는 척 허벅지를 더듬거린다. 음, 어, 잠시만요. 재발급 수수료 납부는 앞으로 십 분 더 연체된다. 교실 뒷문을 열어 허리를 잔뜩 숙인 채 기어들어 가는 건 그로부터 오 분이 다시 지난 뒤의 일이다.

각종 카드와 명함, 신분증으로 가득 찬 지갑은 지난 석 달 사이 짧은 간격을 두고 점차 얇아졌다. 처음은 엄마가 가위로 잘라버린 가족 신용 카드더니, 그다음에는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폐기했고 보란 듯이 학생증까지 잃어버린 차에, 단순 카드 정지로는 바꿀 수 없는 소비 습관이 텅 빈 지폐 칸을 완성했다. 직전에 십오 달러의 수수료를 낸 헤이든 권에게는 오늘 점심을 사 먹을 땡전 한 푼조차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 될 사항은 아니다. 엄마는 이 기회에 다음 오디션까지 다이어트하라며 사고의 전환을 꾀할 테고, 아빠는 하나뿐인 아들이 배가 고파서 운동장의 흙을 주워 먹었대도 말뿐인 동정을 건넬 게 분명한 와중에, 눈매를 둥글게 굴린 채 카페테리아에서 어정거리고 있으면 눈이 밝은 누군가가 동정표 혹은 데이트 빌미를 위해서라도 점심을 나눠줄 테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던가. 돈과 유명세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돈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막대한 지원이 사방에서 들어온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유명 인사다. "맞아, 다들 나를 알더라고." 단지 얼굴이 특출나게 볼만하다거나 교내에서 대형 사고를 쳐서 학생들이 이름을 아는 수준이 아닌, 휴대폰을 열어 구글 검색창에 이름을 타이핑하고 엔터를 누르면 맨 위에 스튜디오에서 피부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뜨는 수준의 유명 인사다. "나 검색해 봤어?" 어머니인 단아 빅커스-권은 지금은 은퇴했지만 LA에 본사를 둔 대형 에이전시 소속의 모델이었고, 그 자신은 정확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원으로(빽으로) 열 살 무렵 일찍이 데뷔한 아역 배우다. 마지막 작품 촬영은 일 년 전. 이후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학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모 토크쇼에서 인터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헤이든 권이 현재 나대지 않고 죽은 듯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본 인적 사항을 지나 스크롤을 조금만 더 내려보자. 이름, 나이, 가족 관계-외동, 출신지, 소속 에이전시, 필모그래피, 반려견의 이름, 혈액형, 좋아하는 색, 성격 유형, 재학 중인 학교, SNS 계정, 친구들은 본 적도 없는 어린 시절의 사진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지 않아도 그 애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어쩌면 그 애의 부모님보다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심한 건 이거다.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나 헤이든의 부모님, 혹은 당사자를 통해서 직접 듣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 사건을 알게 되었다. 육 개월 전의 일이다.

그 기사는 매니지먼트사조차 완벽한 수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다. 훗날 감독의 예상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한 독립 영화의 프리미어 상영을 코앞에 둔 초겨울, 새벽 두 시 스카짓 카운티 외곽의 프라이빗 별장에서

출발한 검정 BMW 한 대가 선버리 눅으로 들어서는 갈림길에서 시속 130km/h로 달리다 길을 이탈해 도로 옆 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헤이든 권과 같은 에이전시 소속의 신인 배우인 십팔 세 메건 마허였고, 마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간이 소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성인 음주 운전 검거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다. 헤이든도 거기에 있었다. 바로 옆자리에서 똑같이 취한 채로. 게다가 마허가 운전한 차량이 헤이든의 소유였던 탓에 대중은 헤이든 역시 사고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간단히 잊고 그에게 메건이 받아 마땅한 비난까지 모조리 쏟아냈다. 메건의 양친인 마허 부부가 이 사고는 차 열쇠를 건네준 헤이든의 잘못이라며 소송을 걸기 무섭게 에이전시는 헤이든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등을 돌렸다. 사고 직후 꼬박 이틀 만에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헤이든이 세 시간 동안 접한 게 바로 그것이다. 그는 깁스를 한 채로 사과 영상을 찍어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하고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다음 공식적으로 마허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부모님과 매니지먼트에서 붙여준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정확히 사고 이 주일 뒤 등교한 헤이든이 가장 처음 마주한 건 사물함에 붙어있던 [걔 맛은 어때? LOL]이라고 쓰인 쪽지였다.

순식간에 뉴스 사이트 전면에 도배된 기사가 검색망을 비껴가 살아남은 한두 개를 제외하고 모조리 내려간 다음 날 헤이든은 여전히 화난 표정의 엄마와 피로와 슬픔 사이에서 어느 편으로도 기울지 못하는 얼굴의 아빠를 하교 직후 현관문에서 마주쳤다. 가방을 내리지도 못하고 착한 아이가 되겠다며 마치 열 살 때처럼 손가락까지 걸어 약속한 다음, 취조에 가깝게 학교생활 이야기를 탈탈 털린 뒤에야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옷도 신발도 벗지 않고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이불과 쿠션으로 얼굴을 덮고 나니 드는 생각이라고는: 돈깨나 깨졌겠네, 하는 것뿐이었다. 아마 그쯤 마허가 보고 싶었던 것도 같다. 그 애랑 잔 적도 없고, 사실은 친구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애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두 달 전, 마허의 생일에 엄마의 찬장을 뒤져 남은 와인 반병을 찾아 비우고 아빠의 차 열쇠를 훔쳐 정지된 면허증과 함께 시속 15km/h 속도로 샌디 엔젤 해안 도로를 기다시피 하다가 다시 새벽 두 시에 검거되었다. 봄기운이 물씬한 날이었는데 자정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뺨을 짓누르는 차창과 수갑이 깨질 듯 차가웠다. 면허는 취소되었고 구치소에 가더라도 학교 수업은 들어야 한다는 엄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주말 수감을 선택했을 때, 그때 그 구질구질한 청소년 구치소에서의 48시간은 딱히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강제성을 띤 이질적인 평화 속에서 평생 누워본 적 없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등을 붙이고 손을 가지런히 모아 배 위에 올린 채 그저 고요를 만끽하고 싶었다. 클랩스틱을 치는 소리도 없고, 조명과 반사판도 없는 날것의 현실인 그곳에서.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이 연기하는 필름 속 등장인물처럼 방종의 자유와 철없는 일탈의 순간조차 멋대로 즐기지 못하는 성질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한계를 인지한 벼룩이거나 겁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키워졌고 자랐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고요나 평화가 없고 그날 남은 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고민들 뿐이었다. 진짜 고민도 아닌, 걱정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감에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하기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무얼 가장 하고 싶어? 몇 시간 뒤에 본인이 낸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될 운명도 모르고, 마허가 그렇게 물었다. 넓고 미끈거리는 L자 가죽 소파 위에 나란히 늘어진 채로. 매우 느린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오이먀콘에 갈 거야. 히말라야에 갈 거야. 에베레스트산을 오를 거야. 그렇게 말하던 입술이 샴페인에 젖어

반짝였는지, 사실 반짝이던 건 명정과 혼탁을 오가는 중에도 두어야 할 곳을 정확히 알던 두 눈이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헤이든이 취기를 빌려 털어놓은 말 중, 네 드레스를 훔쳐 입고 파티에 가고 싶다는 그 토로를 메건이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비밀을 지켜주겠노라 약속했는지, 주말에 우리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해주었는지, 징그럽다며 비웃었는지, 그게, 그것들이, 그 모든 게 사실이냐고 물었는지. 여성용 구두의 제일 큰 사이즈를 알아본 적이 있다는 사실, 피부색이 비쳐 보이는 얇은 탠 스타킹을 눈여겨 본 적이 있다는 사실, 엄마의 옷장을 열어 몇 번이고 몸 위에 치마를 가져다 대본 적 있다는 사실…….

사고뭉치다. "그런가?"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병이라고 말 안 해? "자주 해." 그러나 모범생이다. "나도 알아, 이상하지." 그의 어머니인 단아 빅커스-권은 당신의 아들이 이미 십 대에 커리어의 출발 지점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그 애를 아이비리그에 꼭 보내야만 살 것처럼 들들 볶아댄다. 공인으로서의 인지도가 바닥을 치는 지금, 다른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기에는 완벽에 대한 강박이 이어진 건 꽤 오래 전의 일이다. 그 점이 마치 아시안 학부모의 전형으로 보이면서도 동시에 미 상류층 특유의 자식에 대한 엄격한 사랑과 지지가 상당히 겹쳐 보이기 때문에 그 애를 더더욱 우리로부터 생소함으로 멀어지게 만든다. 사고가 있기 전에는 학생회 소속이었고, 지금은 다양한 문제로 제명당한 그 애가 모든 과제에 A+ 점수를 맞기 위해 죽어라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친하지도 않은 동급생의 바이크 열쇠를 훔치거나 파티에서 맛이 갈 정도로 취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 둘의 균형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건 헤이든 본인도 마찬가지인 사유로, 갖가지 하기 싫은 일들과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선택, 뒤따르는 책임을 모조리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가장 쉬운 결정을 내렸던 게 바로 최근이었으니. 학생회에서 퇴출당한 이후 새로운 동아리 가입을 위해 고뇌하던 헤이든의 뒤로 재빠르게 접근한 연극부 부장은 그에게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며 클럽 가입을 권유했다. 그렇지 않아도 까딱하면 수학 학회에 이름을 올리기 직전이었던 헤이든은 채 일 분도 고민하지 않고 연극부 부장의 두 손을 꼭 쥐어 선언했다. 나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그렇게 약 두 달 전부터는 연극부 부원이다. 적성은 둘째치고 연극부 부원 사이에서 치트 코드인 동시에 마스코트가 된 헤이든은 원하는 배역을 손쉽게 따내거나 하사받는다. 오디션을 망친 신입생에게 아주 유용한 조언을 건네면서도 대본 리딩을 수시로 빼먹는 등의 선택적 모범성과 오락가락하는 친절로 변덕스러운 건 여전하지만, 웃는 날이 늘고 근 육 개월 사이에 가장 행복해 보였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시나리오를 작성한 애들은 헤이든이 오디션을 본 배역이 대사 두 줄이 고작인 엑스트라라고 해도 경쟁률이 높은 주연으로 올려주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아, 이놈의 인기란! (하지만 실제 인간관계는 얄팍하기 그지없는 탓에 진심으로 그를 부러워하는 애들은 소수거나 아예 없기 마련이다.)

그리고 분명 그 째지는 기분은 엘로디 라이델의 단체 메시지를 받은 전날까지만 해도 계속됐었다. 헤이든 권은 이 급조된 그룹 안에서 티 날 정도로 표정이 어두워진 애들 중 하나다. 그는 벌써 등굣길에 세 명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들었다. 그 애의 얼굴을 보면 마치 우리 전부가 가해자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정도다. 지은 죄가 명확하고 이미 겪은 일, 지나온 일이라는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헤이든 권은 엘로디 라이델이 그 영상들을 유튜브에 공개 링크로 올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미 죽은 그 애가. 엄마와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 진부한 원칙 아래 조심스럽고 또 정확하게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걸고넘어질 테니, 그것만큼은 필시 막아야 할 테고, 또, 교내에 혹은 그 바깥으로 퍼져 또다시 커리어를 걸고 지난한 수습을 해야만 하는 일만큼은 정말이지 피하고 싶었으므로. 차례로 도착할 영상 속에서 본인의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지레 겁을 먹은 채 사방을 곁눈질할 그 애를 누구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건 우리라는 데에 누구 하나 이견이 없겠다.

- GPA 3.2, SAT 1420. 수업 참여 태도와 성실성의 문제로 교내 평균을 아주 조금 웃도는 GPA 점수를 기록하는 반면, 정작 SAT 점수는 높게 나오는 편이다. 우리 엄마 성질을 내가 못 이겨. 그렇게 말하긴 해도, 빅커스-권 부부가 무서울 만큼 아들을 잡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애정이 흘러넘치는 눈으로 부드럽게 조언하는 거라면 모를까.
- 선버리 늑 토박이, 업타운의 타운하우스 거주. 한국, 미국 이중 국적자로 주기적으로 엄마의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낸다. 아빠인 오라이언 빅커스-권은 경영 컨설턴트로 출장이 잦다.

WITH

잔카를로 "칼" 사코 실수했다. 하필이면 칼 사코한테! 이 야구랑 여자밖에 모르는 다운타운의 한량은 어느 시점부터 나를 제 키링이라도 되는 양 끼고 다닌다. 언제부터냐고? 한 달보다는 더 됐고 두 달보다는 덜 됐던 어떤 날에, 내게 *파티를 여는데 와달라*고 직접 호감을 표현한 올리 달튼의 집에서 **그 일**이 있은 뒤로. 그 일이라 함은, 잔뜩 기대한 올리비아가 알코올에 절여져 어떤 짓을 해도 서지 않는 내 주니어를 보고 그만 실망하고 말았을 때……. 나는 너무 취해 있었고, 술은 조금도 끊지 못하겠고, 언제부터 방 안에 자리 잡은 칼 사코가 내 얼굴을 보고 낄낄대며 웃었다. 이상한 일은 그 여자애 앞에서 조금도 서지 않던 게 칼 사코의 손길에 그만 가버렸다는 사실이고, 나도 내 나름대로 걔를 행복하게 했다는 것인데. (문제 하나: 헤이든 권은 칼 사코를 보자마자 흐흐 웃으며 양 뺨과 온 얼굴에 입을 맞춰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다.)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대딸 정도야 남자애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흔한, 흔한…… 일이고……. 아무튼 이 촉은 좋은 머저리가 종종 나를 **계집애** 취급하며 끼고 돌 때마다 내 속이 터진다는 게 문제다. 마냥 싫었으면 다행이지, 그렇지가 않다. 쌍, 내 뇌는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고 저 새끼 뇌는 두개골 안쪽이 아닌

좇에나 달린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주 만난다. 함께 움직이고 머무른다. 가끔 보면 칼 사코는 눈치가 좋은 건지, 아니면 완전히 틀려먹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도 여전히 모르겠다. 그래서 자주 남자애처럼, 등신처럼 마주 웃고 여자애처럼, 예민한 소녀처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다. 그래, 나는 아주 모르겠다.

일라이 J. 워드

ELODIE RIDEL　그날 헤이든은 취해 있었다. 술이든 약이든 기분이든, 뭐든 간에. 곧 중독 재활 센터에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혹은 완전히 제정신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싸움을 목격한 사람들의 눈에는 엘로디 라이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마을 축제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무대에 올릴 창작 연극 「Heart's Run Cold」의 주연 자리를 엘로디가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애들이 없었는데, 오디션의 결과가 붙어있는 게시판 앞에서 입술을 깨물던 엘로디의 표정을 보고서도 헤이든은 눈치 없이 큰 관심도 없던 주연 자리를 꿰차고 웃었다. 그것도 오디션 차례를 기다리며 만약 주인공이 된다면 양보하겠다고 당당히 약속까지 해놓고서. 그건 빚이었다. 그동안 엘로디 라이델은 헤이든 권을 수차례 돕고 구했다. 주연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라고 생각해서. 엘로디 라이델이 보기에 헤이든 권은 얼마든지 자신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치 약 올리듯. 더해서 대본 리딩이나 연습 때도 불성실한 태도로 불참하거나 지각해 대기까지 하니, 점점 더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아니지, 어차피 고작 아마추어 애들이 하는 연습은 하지 않아도 그만인 애고, 결과가 좋을 거라는 건 보지 않아도 뻔한데, 그건 그냥 질투였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도 전에 알아서 거리를 두기 시작한 헤이든이 자신을 외설스런 말들로 폄하하는 남자애들 무리에 끼어 낄낄대는 장면을 목격한 엘로디 라이델은 이 불편한 감정을 증오로 정의 내렸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헤이든 권을 동급생이 아닌 배우로 좋아하던 애들이 더 이상 친해 보이지 않는 둘을 보고 엘로디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차였다더라, 열등감이

있었다더라, 데이트 한 번 해달라고 협박을 했다더라. 그 애는 그냥 거기에 서 있었다. 화가 난 표정의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양.

그런 두 사람이 마을 축제 당일에 서로에게 손을 대면서까지 싸워대던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먼저 소리를 친 건 엘로디였지만, 먼저 어깨를 밀친 건 헤이든이다. 뺨을 맞고 황당함에 벙찐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는 헤이든의 뒤통수에 대고 엘로디는 끝까지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회에서 퇴출당한 거 들켰거든. 근데 연극부에 계속 있고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연 자리를 꼭 잡아야 한다는 거야." 혹은 두 사람의 싸움 직전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난 주연은 됐어. 네가 내 대사까지 외웠으니까, 일주일 정도면 주연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을걸."

OWNER

선 조율 불필요. 조율 필요시 먼저 찾아뵙습니다. 한 캐릭터와의 대화 타래 개수, 잇고 끊음, 오가는 지문의 길이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종료를 따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프로필에 기재된 내용 상의 오류만 없다면 자유롭게 날조해주세요.



LIVE AND IN STEREO